

社說

한탄강댐 진입도로 개설하라

다목적댐으로 건설을 즐기자 게 요구하는 포천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실시계획을 세우고 오는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탄강댐에 포천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을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연천군으로 들어가야 한탄강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행이 사태를 짐작한 포천시의회회가 지난해 11월27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장에게 한탄강댐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계획에 없는 도로를 건설할 수 없으니 연천군으로 접근하라는 답변서를 받았다.

그리고 1월29일 실시계획 변경(안) 설명차 포천시의회회를 방문한 임진강건설단 모 차장에게 포천시의회 정종근 부의장이 다시 강조했다. 한탄강댐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말이다. 임진강건설단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과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포천시민들이 한탄강댐에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개설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정 부의장은 한발 더 나가 만약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포천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포천시민은 나서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포천시민과 대대로 포천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다. 부끄럽

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헌적에 있는 모든 책임 있는 리더들의 매우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포천시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냉정리 모 이장의 주장처럼 한탄강댐을 잇는 관광도로를 이번 기회에 개설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지금 포천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이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연천군 군도호선을 이용할 경우 4km를 더 가야하며 소요시간은 시속 60km를 기준으로 한다면 4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인한 발상이며 포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포천시는 이처럼 무시당하고 있을 것인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리더들의 강력한 대책편을 촉구한다.

시민의 건전한 제안이 묵살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변하도록 선출된 정치인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포천에서 한탄강댐에 진입하는 도로 개설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역량과 지혜와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포천시와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역량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포천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탄강댐 진입도로 개설을 말이다.

“지역발전 위해 영평천 살리기 운동 전개해야”

경기도민 모두가 관심 갖고 포천 사격장 문제 해결해야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운영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 문제와 군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 6월까지 운영되는 사격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파주~가평간 37번 국도 확포장공사가 당초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으로 미뤄지고 예산도 미미하게 편성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의 북쪽은 많이 낙후

되어 있으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영평천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영평천이 살아야 북쪽이 산다는 생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올해는 포천시의회 회기일수를 80일에서 100일로 늘려 생활민원현장을 달려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 의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기내에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의정비 심의는 현행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격장 특위를 운영하면서 전 투기 추락사고와 같은 아찔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학생들의 소음 피해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과 주민간의 접촉이 인파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가지 예로 영평사격장 주변에 경비근무는 경비업체에 맡겨 이 지역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배려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을 맡겼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역에 전혀 관심 없는 미군 부대로 인한 피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매항리의 경우 수조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도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뒤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가 함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의원은 포천시의회는 집행부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안이한 사고를 버리고 고강관념을 깨고 더욱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천시민이 포천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알려주기 위해서는 의정보고회를 의원들이 실시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은 항상 빼놓지 않고 읽고 있으며 언제나 아껴 써주고 싶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고맙다”며 “앞으로도 행사위주의 기사보다는 정책대안 기사를 많이 발굴해서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부족한 면 많이 채워주세요”

김종천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취임식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이·취임식이 1월20일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해 박윤국 전 시장, 이종호 시의회 의장, 이우형 도의원,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 태권도협회 관계자, 각 종목별 회장단, 내외빈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종천 신임 회장은 “어렵고 부족한 면이 많다”며 “어렵고 부족한 면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 달라”며 많은 격려와 용기를 달라고 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경기도체

육대회 7연패의 효자종목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켜 포천시를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태권도는 맑고 강한 훈련으로 덕과 지혜를 쌓는 종목으로 김중천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비상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복현 전임 회장은 “그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신임 김종천 회장을 중심으로 포천태권도협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해뜨는 집 운영 및 애로사항 나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방문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석)는 1월20일 오후4시 포천시 신북면 가재리 소재 해뜨는 집(대표 박진수)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살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모두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포천시 영북면 소재 한화콘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문한 해뜨는 집은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사회복지, 생활재활, 의료재활, 상담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생활을 유도하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해뜨는 집 관계자는 현재 개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석(포천제2선거구·혁신미래)위원장은 “법인설립은 독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널리 홍보해 훌륭한 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지원은 포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거법 알아봅시다 ⑨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Q 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A 누구든지 2009. 1. 8부터 선거일(4. 8)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후보자 이외에 선거운동관계자들의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A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후보자

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9.1.8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원은 선거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535-2243 FAX. 535-2464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Shinmu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Dongtae Village restaurant, featuring menu items like Dongtae Ta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